



박상희 작가의 '신과 인간 사이(Between God and Human)'가 10월 22일~11월 4일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세상 꿈꿔요”

## 문화 조각가 박상희

인간의 삶과 종교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이다. 종교의 궁극적 목표는 행복이지만 종교가 권력이 되고 인간의 삶을 제약하면 인간은 종교 때문에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 박상희 작가는 인간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 또 세상의 그 무엇처럼 보이는 종교의 현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십자가 목걸이를 한 부처님이 어린 예수를 안고 있는가하면, 푸른 형상의 예수님이 '구'자 목걸이를 하고 있다. 또 붉은 복싱글러브 위를 불상과 꽃으로 장식해 화염의 세계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태운 나무조각상을 쇠줄로 묶어 탐진치에 갇혀 있는 중생 또 이를 벗어나고자 열망하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작가는 종교의 벽을 뛰어넘는 작품을 통해 분별과 대립이 극복된 이상적인 불국토, 연화장세계를 보여준다.

박상희 작가의 '신과 인간 사이(Between God and Human)'가 10월 22일~11월 4일 종로구 팔판동 갤러리 도스에서 열린다.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상 예수상 등을 통해 종교의 허와 실 또는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작품은 '이게 뭐고?'(사진 위), 피에타(사진 아래)

“특별히 어떤 종교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저 종교의 본질을 이야기 하고 싶어요. 인간과 사회 종교와 인간 사이에 서서 제 생각들을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사실 인류의 죄를 대신한다는 예수님은 그 자세와 표정이 고통스럽죠. 반면 부처님은 자애로운 표정, 연화미소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작가는 끝을 알 수 없는 부처님 자비의 미소와 열반 그 법열의 순간을 담기 위해 고심했다고 한다. “세상의 수많은 불상이 있지만 저만의 미소를 찾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고민도 많았죠. 작업을 하면서 할 수 없는 묘한 느낌이 있었어요. 참 어렵고도 매력적인 일



박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불상 예수상 등을 통해 종교의 허와 실 또는 종교의 존재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한다. 작품은 '이게 뭐고?'(사진 위), 피에타(사진 아래)

**종교의 형식적 틀에서 벗어나 불상과 예수상 조각에 새겨 10월22일~11월4일 갤러리 도스 연화장 세계 작품으로 보여줘**

이죠. 제가 부처님이 되는 것 같고 부처님의 마음을 읽고 그 모습을 직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제 마음이 흠을 통해 전달이 되면 마음이 편안해져 저절로 행복이 찾아옵니다.”

물론 그는 이번 작품에서 예수상을 모티

브로 한 작품도 다수 선보인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공격해 어린 생명들이 이윽도 모른 채 무참히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작가는 종교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에 총 맞은 예수의 모습을 통해 잔인한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기독교가 종교 때문에 무참히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 면에서 이런 현실을 대입할 수 있는 소재가 기독교에 많아요. 총에 맞아 구멍 난 예수의 상을 만들어 벽에 걸어 놓고는 제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이는 처참한 현실 때문이기도 했고 작가로서 표현의 한계성을 느꼈기 때문이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날 작가는 구멍 난 예수의 몸에 꽃을 꽂아 주었다. 그러자 주님의 구멍은 희망과 사랑을 담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그는 지난해 해인아트 프로젝트에 참여해 휴류동 계곡에 와불상을 완성하기도 했다. “어느날 작업을 하다가 멈추고 다음날 새벽에 다시 왔는데 누군가 와불 위에 동전을 놓고 갔더라고요. 기분이 참 묘했어요. 그렇게 작업을 마치니 해인사 스님과 신도님들이 오셔서 봉안식을 했는데 감회가 새로웠어요. 얼마전까지는 단순한 돌덩이였는데 제 손길을 타고 완성된 와불이 어느 순간 경배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말이죠.”

늘 여행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표현하고자 한다는 박상희 작가. 이런 그가 세상의 다양한 풍경 속에서도 유독 종교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뭘까? “종교를 작품으로 표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간과 절대자를 이어주는 종교에 대해 당분간은 할 이야기가 많을 거 같습니다. 너도 나도 없고 삶과 죽음도 없는 세상,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작품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합하는 무념무상 공의 세계를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 두타승은 한 번 웃고 더 말이 없네

## 무상한 시간 구도의 징표

“또 앞으로 몇 리를 나아가자 산이 휘둘 아 길이 막혔다. 올려다보니 다섯 봉우리가 장엄하게 다투어 높이 솟아 서로 형제 들처럼 서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오관산이다. 그 기슭에 영통사(靈通寺)가 있었다. 이 절은 옛 송경(松京)의 대가람(大伽藍)으로, 중간에 화재를 당하여 건물이 열 중에 두셋 정도만 남아 있다. 뜰에는 세 개의 석탑이 서 있고 문밖에는 고려 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비가 서 있는데, 중간 이하는 글자가 떨어져나가 읽을 수 없었다. 채수의 송도록에서 매우 칭찬한 명승지 서투(西樓)는 지금은 남아 있지 않았다.”

조선 후기의 문신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의 문집 <농암집(農巖集) 제23권>에 나오는 '송경(松京)유람기'는 오늘날의 개성 주변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이다. 후반부에 오관산과 영통사에 대한 기술이 있는데 비교적 소상하다. 특히 “뜰에는 세 개의 석탑이 서 있고 문밖에는 고려 시대 승려 의천(義天)의 비가 서 있는데, 중간 이하는 글자가 떨어져나가 읽을 수 없었다.”는 부분은 오늘날의 풍경과 큰 차이가 없다. 2005년 천태종이 복원한 영통사 역시 보광전 앞의 석탑과 뜰 앞의 의천 대각국사비가 그대로 존립하고 있다. 무상한 시간 위에서 있는 구도의 징표인 셈이다.

김창협은 개성 지역을 유람할 때 영통사에 들렀던 소감을 시로 남겼다. <농암집> 제6권에 '영통사'라는 제목 아래 두수의 시가 실려 있다.

영통유구(靈通遊久) 단역입산심(但憶入山深) 예예석림색(依依石林色) 요요종고음(寥寥鐘鼓音) 사공탄지검(寺空彈指劍) 객지백두음(客至白頭吟) 계마장랑하(繫馬長廊下) 전진창도심(前塵 道心)

**영통사 유람한 지하마 오래라 산속 깊이 들어갔던 기억만 아련하다. 바위에 나무숲이 무성도 하고 범종이며 복소리 적막하구나. 손가락 통갈 사이 절은 텅 비고 길손은 백발 되어 시를 읊누나. 긴 행랑 아래에 말을 매면서 지난 일 서글프게 이야기하네. 넉넉한 마음의 흥취**

첫 번째 시에서 김창협은 영통사의 풍경과 무상한 세상사를 담백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시에서는 그 무상감이 더욱 절실해지고 역사 속에 흘러간 영통사의 시간을 관조하는 자세를 보인다.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갖든 선비의 詩心

### ④ 영통사 ㊸



영통사 뜰에 서 있는 대각국사비.

화기우래편(花氣雨來) 승거연리심(僧居煙裏深) 계행만창석(峩行萬蒼石) 루대오청암(樓對五靑岑) 채로기유재(蔡老記猶在) 취헌시가음(翠軒詩可吟) 전조나부문(前朝那復聞) 비자욕생금(裊字欲生金)

**골고루 내린 비에 꽃이 피는데 깊은 안개 그 속에 스님들 사누나. 검푸른 일만 바위 흐르는 시내 푸르른 다섯 산봉 마주한 누대. 채로 기록 아직 남아 있는데 읊취한 지은 시가 읊을 만하네. 과거 왕조 이제 와 어찌 물으리 비석 글자 황금이 흘러나올 듯하네.**

시에서 3구와 4구는 '검푸른 바위'와 '푸르른 산봉우리'로 대구를 이루었는데, 5구와 6구는 '채로'와 '취헌'이라는 인물로 대구를 이루었다.

채로는 성종 때의 문신 채수(蔡壽 1449~1515)이고 취헌 역시 성종 때의 문신 읊취헌(攄翠軒) 박은(朴溫 1479~1504)이다. 채수는 허침, 조위, 안침, 성현 등과 개성 지역을 유람하고 <유송도록(遊松都錄)>이란 여행기를 남겼다. 김창협은 그 기록을 본 것이다. 또 박은의 경우도 영통사를 찾아가 '영통사에서 흥을 읊다(靈通寺記興)'라는 시를 지었다. 그의 문집 <읍취헌유고>에는 '영통사기흥' 외에도 두수의 칠언율시가 실려 있다. 그 중 '영통사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하다'라는 시를 보자.

산화척축자성림(山花 自成林) 고사송삼정영음(古寺松杉晴亦陰) 분부초인여쟁석(分付樵人與爭席) 추수곡조요동음(追隨谷鳥要同吟) 두타일소경무어(頭陀一笑更無語) 천석백년응사금(泉石百年應似今)

세만회심향화사(歲晚會尋香火社) 종전진토만부침(從前塵土 浮沈)

**산꽃이라 철쭉이 절로 숲을 이루었고 옛 절에 숲속은 맑은 날도 어둑하리라. 나무꾼에게 분부해 자리 다투게 하고 골짜기 새 따르며 함께 시를 읊고저. 두타는 한 번 웃고 더 말이 없는데 천석은 백 년도록 늘 오늘과 같으니. 세모에는 반드시 향화사를 찾으리니 종전엔 진토 속에 부질없이 부침했구나.**

시는 봄날 철쭉이 만개한 풍경 속의 영통사를 묘사하며 시작된다. 그리고는 나무꾼도 합석하여 즐기려는 넉넉한 마음과 새들이 우짖듯이 함께 노니는 벗들과 어울려 시를 짓고자 하는 흥취를 드러내고 있다. 뒤이어 나오는 두타 즉 고행하는 스님은 한 번 웃고 말이 없다는 구절과 천석 즉 자연 만물은 백년도록 오늘과 같으니라는 대구도 아주 깊은 의미를 품고 있다.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 간 두타승과 만고에 여여한 자연 만물이 자연 그대로 공존하는 풍경이야말로 인간의 모든 욕망이 사그라진 깨달음의 세계가 아니겠는가? 그러한 시인의 속내가 결국에서 가감 없이 드러난다. 세모에는 반드시 찾아가리라 다짐하는 '향화사'는 산사(山寺)를 뜻하는데, 고절한 은자(隱者)의 은거지라는 의미도 있다. 당나라의 백거이(白居易)가 벼슬을 그만두고 향산에 들어가 절사를 맺고 수행한데서 비롯된 말이다.

### <바로 잡습니다>

10월 2일자 1012호에서 소개된 직지사 대웅전을 경북유형문화재 제215호에서 **보물 제1576호**로 바로잡습니다.



##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 흥 교 (법화 중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 구단구궁법

**특**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 강 의 일정표

-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법칙
- ◇ 제 5일 - 구단구궁 실천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 인터넷, 정·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